

북한을 위한 기도

2025년 1월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통일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교현장에서도 여러 관련 사건들이 확인됩니다. 본 선교회가 확인한 최근 박해 사건들의 경우, 순교 및 실종 등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 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강제 복송된 탈북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23년 10월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23년부터 강제 복송된 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 유무 및 관련 접촉 여부를 심문하는 별도의 전담관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미 복송된 신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체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 속히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인권 침해와 억압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은 소위 3대 악법이라 불리는 각종 사상문화 통제 법령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강도 높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미디어 접촉과 공유를 죄목으로 미성년자에게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십 년 이상의 극형을 선고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 및 각종 강제 노동과 고문 등 기존 인권 문제들도 여전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악습과 행태가 하루 속히 중단 및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한의 억압적인 제도와 법령들이 변경되거나 철폐되고, 과도한 처벌과 폭력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제27조 (금조인사정훈화신파죄)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남조선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작하였거나



5.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알렉스 윙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해온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특임대사로 임명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북핵 폐기 대신 군축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결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알렉스 윙 국가안보 부보좌관(위)과
리처드 그리넬 대통령 특임대사(아래)

6. 안정적인 해외 북한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 등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라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선교사들과 현장 사역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역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구금 중인 백 모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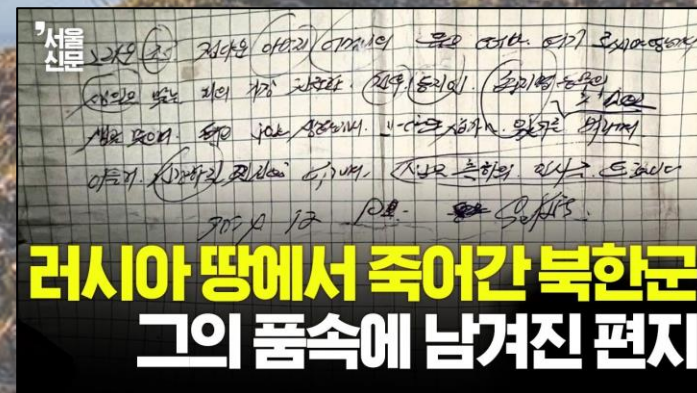


사드 사태 당시 선교사 추방 관련 보도

7. 러우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우 전쟁의 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이 1만여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행보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백여 명 이상의 북한 측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무고한 피 흘림이 중단되도록, 더 나아가 전쟁 종식을 통해 전쟁 지역과 한반도 모두 평화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8.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지금,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서민들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시장 대신 국가 주도 경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환율 및 물가 상승을 부추겨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대규모 수해의 여파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고단함은 심해져만 갑니다.

북한의 정책이 바뀌고 주민들의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추위의 겨울을 맞아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물자들이 공급되도록, 이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